

광주 동남을·북구갑·북구을·해남완도진도 민주 1차 경선 광주·전남 4곳 확정

전북 3곳 등 전략공천지 전국 52곳 선정... 오늘 2차 발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4·13 총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광주 3곳, 전남 1곳, 전북 3곳 등 경선을 하는 지역 52곳을 1차로 발표했다.

공관위 간사인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1차 경선지역을 선정했다"면서 "수도권 23곳, 충청 6곳, 호남 7곳, 대구·경북 3곳, 부산·경남 10곳, 강원·제주 3곳 해서 모두 52곳"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 김해경, 이병훈 후보의 경선을 결정했다. 또 북구갑에서는 정준호, 조오섭 후보의 경선 그리고 북구을에서는 이형석, 전진숙 후보의 경선을 각각 결정했다. 전남의 경우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윤광국, 윤재갑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당비를 내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1차 경선지역 발표에 이어 14일 2차 경선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다음 주 중으로 전략공천 지역도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광주·전남 지역구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저녁 면담을 마무리한 뒤 종합 심사를 거쳐 1차로 경선이 필요한 지역을 확정했다"며 "경선 지역구는 앞으로도 공심위 심사와 당의 전략 등에 따라 2-3일 정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선 지역 및 후보자 최고위 의결,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실무준비, 선거인 명부 확정 등을 거쳐 이달 25일 전후로 사흘간 1차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앞서 전략공천 지역 15곳을 선정한 데 이어 다음 주 추가로 전략 공천 지역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전략공천 지역을 우선 정하고 누구를 전략공천 할 것인지는 내부 논의를 통해 3월 중순께나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지역은 순천시의 분구 여부 등이 연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공천 지역 선정이 일정 정도 늦춰지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전략 공천 지역구도 내주에 발표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어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의 예비 후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또 광주 서구 갑 등 현역 의원만 공천을 신청해 경선이 불가능한 지역구 64곳 등 단수 신청 지역 100곳 전부를 대상으로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 간의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나자 중앙당이 공식 경고에 나섰다. 당 공관위는 일부 지역의 예비 후보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무분별한 네거티브를 할 경우 공천배제, 후보자 심사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나경원 의원, 신상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지역구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신청자 면담 심사 이틀째인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수후보 중에서 오세훈(광진을), 나경원(동작을), 허용범(동대문갑)과 오늘 면담을 본 신상진(성남중원) 후보 지역은 사실상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5·18 비방' 지만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1심 재판, 법정구속은 안 해
5월단체 "수용못해, 구속하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씨가 2015년 10월 기소된 지 4년4개월만이다.

5·18 단체들은 재판부가 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점을 규탄하며 지씨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인 운전사 오 김씨를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5·18 단체 관련 자들에 대한 상해 혐의와 관련해 정당방위라는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지만원이 법정구속 될 때까지 법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영화 기생충 같은 불평등 현실



영화 기생충의 기택(송강호)이 본인의 반지하 집에서 창문으로 통해 밖을 쳐다보고 있다. 극중에서 기택의 반지하집은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상징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 광주·전남에 720채 ... 수십억원대 주택도 '수두룩'
고소득층 월평균 980만원·저소득층은 137만원 '7배 이상 차이'

아카데미 4관왕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은 세계의 빈부격차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관련기사 6면> 영화 속 '반지하'는 광주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오래된 과실수, 별이 넘치게 들어오는 마당, 계단으로 올라가는 2층을 둔 수십억원에 이르는 단독주택은 광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2일 김종훈 민주당(울산 동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반지하 주택은 313채로 집계됐다. 전남은 407가구가 반지하층에 살고 있다는 게 통계청과 김종훈 의원 설명이다. 당시 통계가 가구당 가구원을 2.5명으로 분석한 점을 고려하면 1800명이나 되는 지역민들이 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반지하층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종훈 의원 자료는 조사 시기가 5년 전이다.

광주시 5개 구청은 건축물 대장을 일일이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울처럼 주거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예전처럼 반지하 주택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층과 최상류층 간 빈부 격차도 광주·전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이다. 영화 속 벤처사업가 박사장(이선균)이 사는 집은 대략 50~60억원대로 추정된다. 국토부 통계대로라면 광주·전남에 이 같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없다.

현재로서 최고가 거래 수준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2차 아파트(181.29㎡)가 지난해 9월 13억원에 팔린 정도다. 반면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에 살 수 있는 원룸도 곳곳에 넘쳐난다.

소득 불균형도 극심하다. 통계청의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층인 5분위 월평균 소득은 980만원. 최하위 계층인 1분위 소득은 137만원으로 무려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몇 년사이 최고가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투기 심리가 과열 되면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심리적인 빈부격차에 실제 빈부격 차이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광주·전남 빈부 격차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19' 1주일째 확진자 없어

주말·휴일 외부활동 권고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전진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틀째, 광주·전남에선 지난 6일 22번째(나주) 발생 이후 일주일째 확진자가 없다. 완쾌해 퇴원하는 확진자도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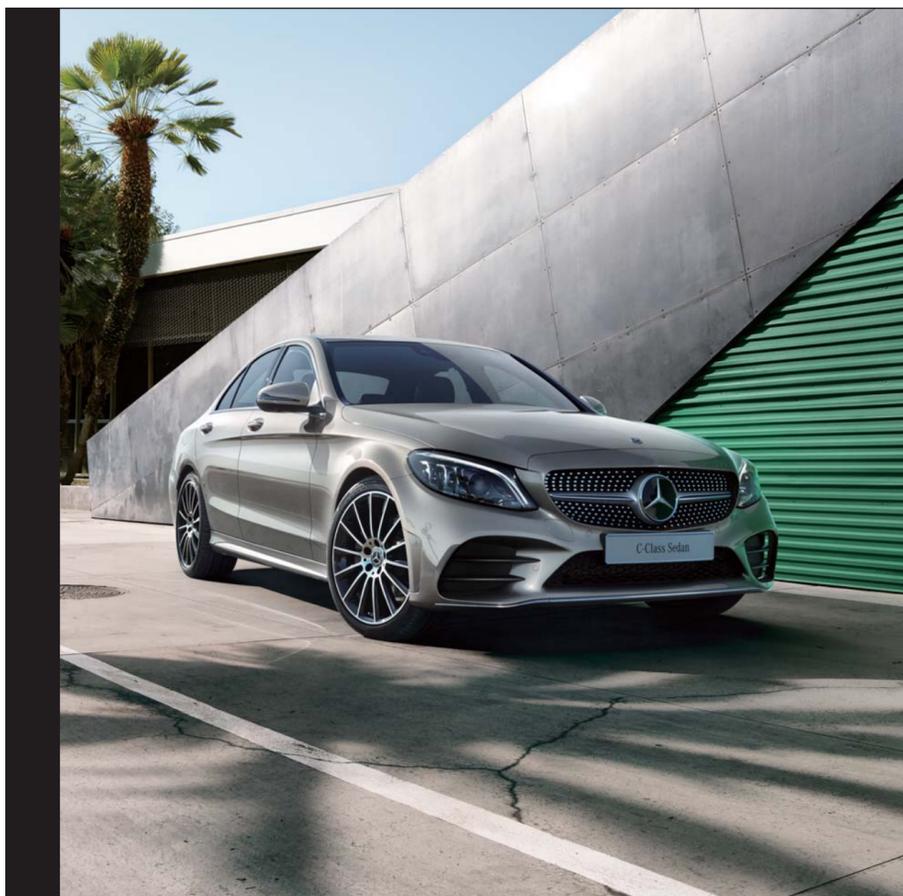
광주시와 전남도 등 방역당국은 선진 방역 시스템이 구축된 점을 강조하고, 주말·휴일을 맞아 일상적인 외부활동을 권고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면>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8명이며, 이 중 7명(1·2·3·4·8·11·17번)은 퇴원했다. 나머지 21명은 격리병상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안정적이다. 특히 광주·전남 확진자인 16·18·22번 환자는 당장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광주·전남에서 접촉 격리자는 각각 293명과 46명 등 339명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다음주 격리 해제된다. 이 중 광주21세기병원과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된 60명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격리 해제가 일 하루 늦춰져 오는 20일 0시를 기해 격리 해제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l(도심연비: 13.2km/l, 고속도로연비: 16.3km/l),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